

“위드 코로나 시대 방향 제시하는 원년”



백석민
남구의회의장

어느덧 급변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남구의회를 성원해 주신 27만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토대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힘든 여건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남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사

고 많았습니다.

2020년은 역사에 페이지를 장식할 한 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연이은 풍수해까지 겹쳐 매 순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구의회는 재난지원금, 독감백신 승인, 세 차례 추경예산 처리 등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전폭적 어느 곳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직 사회 전반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회복을 낙관할 수 없지만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위기 극복의 답을 함께 찾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약 한 달간은 올해 의정 활동의 꽃이자 의회의 시간입니다.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 준비에 많이 애쓰신 걸로 압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은 물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감사 소기의 목적을 얻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다루어질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제 위기로 축소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위드 코로나 시대 재정운영 방향까지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당리당락을 떠나 주민의 삶을 위한 정책 사업은 적극 협력한다는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추진이 미흡하거나 틀린 점은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회와 마주 앉기를 두려워하면 문제는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른 민생과 지역 경제 조유의 위기는 단편적인 처방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항상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도 형식과 권위보다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구민 행복을 실현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 복리와 남구 발전이라는 한 방향으로 두 발을 크게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칠 전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절기 재해 예방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려운 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경자년 한해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연말 보내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색하는 남구청의 이유”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이날 서성부 의원은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을 위하여”, 고선화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정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또한 회기 중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구청장 배부 마스크 ‘의료용’ 문구 약사법 위반에 따라 기소된 남구 공무원과 관련한 남구청장의 입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기획담당관 제주도 출장 적절성”,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원 자료제출요구에 비공개 답변으로 일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남구의회(의장 백석민)는 202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0일부터 열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회는 개최 첫날인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날 조상진 의원은 ‘남구 관광도시화를 위한 민간사업 유치제안 촉구’, 고선화 의원은 ‘용당동 미륵레미콘 앞 회전교차로 공사 문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1월 23일에는 기획전략실장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고, 연이어 박민수 의원이 남구청장과 기획담당관 대상으로 “무상배부 마스크 ‘의료용’ 문구 약사법 위반에 따라 기소된 남구 공무원과 관련한 남구청장의 입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기획담당관 제주도 출장 적절성”,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원 자료제출요구에 비공개 답변으로 일

백석민 의장 구·군 의장협의회 부의장 선출



남구의회 백석민 의장(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11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구·군의회별 의정활동사항을 공유하고 2021년도 의정협의회 예산편성 및 주요 추진사업 논의를 하였으며, 제2대 후반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정협의회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구정질문



박미순 의원
(용호2·5)

〈질문 요약〉

남구청장 대상 : 오늘 구정질문은 첫째, 올해 초 전 구민에게 배부한 마스크로 구정공무원 네명이 검찰에 기소된 연유와 둘째, 구청 집행부와 의회 소통 부재와 불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묻고자 합니다.

전 구민 마스크 무상배부 시 ‘의료용입니다’ 문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서부경찰서에서 남구청 공무원 네명을 검찰로 기소 송치 전에 남구청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 사실을 바로 잡고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배부일이 며칠 지연되더라도 약사법 위반을 하지 않고 배부되었어야 합니다. 남구청 간부회의 때 마스크의 ‘의료용입니다’ 문구를 가리는 스티커 작업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1회 대한민국 행정대상 시상식에 전 구민 마스크 배부의 공을 인정받아 남구청장은 대상을 수상하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기소된 부면에 대해 공무원들의 남구청장 불신과 남구청 행정 후

■주민배부 마스크 약사법 위반 공무원 기소

■행정사무감사 기간 기획담당관 제주도 출장 적절?

■지방자치법 근거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비공개 이유

회의 책임을 남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또한, 소통을 강조하는 남구청장이 의회와 남구청 직원들과도 불통이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예산을 들어 구청장실을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지만 남구청장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1년 전부터 민원인과의 면담 일정은 없는데, 독단적 불통의 원인이 남구청장에게 있는지, 옆에서 보좌하는 기획담당관과 직원들에게 있는지, 남구청장의 책임있는 제발 방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획담당관 대상 : 작년부터 안전심사와 안전진사 준비를 위한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기획담당관은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을 종합적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없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남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거부할 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의 독단적 결정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기획담당관은 남구청장과 함께 의회를 무시하는 식으로 협조 요청 없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지 주축측 공식 일정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이었는데, 공식일정이 없는 11월 19일에 제주도 방문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과 어떤 목적을 위한 출장이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남구청장과 기획담당관이 동행했어야 하는지 답해 바라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획담당관의 출장은 남구청장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며, 기획담당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바랍니다.

〈답변 요약〉

남구청장 답변 : 마스크 수임 구민 무상배부와 관련해 법적 이견이 있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서부경찰서에서 남구청 공무원 4명과 남구청 기관이 기소된 것으로 동부지청에 송치되었는데 경찰 소환에 충실히 이행하고 당당히 답변하였습니다.당시는 구민들이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발뺌을 하는 등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료용인지, 비의료용인지에 대해 솔직히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경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적인 대응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최선의 조치였음을 이해해주십시오. 우의의 잘못에 대해 서부경찰서에서 유형 판단할 권한이 없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법률가의 도움을 청해주는 게 기본 책무라 생각해서 구청 전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남구가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회 때



조상진 의원
(대연3·5)

남구 관광도시화를 위한 민간사업유치 제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경제화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경제적 위기는 전통적 제조기업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제조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더이상 부산 경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월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됨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선화 의원
(용호2·3·4·5)

불필요한 교통관련 민원을 야기시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집행부의 형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통민원은 “용당동 현대아파트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차량 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시비 3억원을 재배정 받아 2020년 7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나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회전교차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감소시켜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도로 여건과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서성부 의원
(대연1·4·6·5)

본 의원은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변화와 도심쇠퇴로 지역의 역사, 장소에 기반한 도시재생이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각 지역은 도시 재구조화를 요구 받으며 폐산업 시설과 유휴공간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문화가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문화계획’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문화를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혁신을 융합하여 창조산업, 창조도시로서의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기획담당관 답변 : 남구의회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여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해당 위원회 개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 최대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행사가 계속 연기,취소를 반복하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날인 18일야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전국이 한국판 뉴딜로 들쭉거리고 있고, 유례없는 예산이 지역균형이라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단체장 대상 포럼이 제주도에서 열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지않을 내용을 청해주시는 것은 차원이기 때문에 상대기관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한 점 이해를 바랍니다.

관광도시 남구 위한 민간사업 유치 제안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산 내 자치구에서도 각기 전략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남구도 지난 6월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 외에도 관광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변화를 읽고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 회복 수요(이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업 유치라는 희망고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겠다고 기다리는 관광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지역 복합리조트가 그렇고 이기대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구와 관련된 케이블카 사업은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한다면 부산 청년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내 최장, 최대 금액이 투자되는 해상 케이블카라면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남구의 특색 있는 관광이템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기대 갈맷길의 데크 확대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야간경관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발굴과 과감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만이 남구의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관광 소비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부산광역시의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섭자리, 이기대 공원 지역을 재정비하여 관광 남구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촉구가 허무한 메아리가 아닌 모두의 가슴에 울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구 역사와 지리적 요소를 융합한 용리단길과 같은 명소를 발굴하고, 이기대 갈맷길에 대한민국 제1의 절경을 이룰 때까지 남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용당 미륵레미콘 앞 회전교차로 공사 문제

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자 현실에 남비하는 것입니다.

국도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는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설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사업은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이 불분명하고 필요성도 떨어진다 할 수 있어 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향상상의 설치 목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지 주변은 레미콘, 물류 공장 등이 있어 대형차량과 함께 인근을 운행하는 5~6천 세대 주민들의 승용차가 함께 통행합니다. 대형, 소형차량이 혼재된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진입구간이 레미콘 공장과 맞닿아 있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부분은 구 동명북제 방면은 거의 없어 회전교차로 기능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회전 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차선이 감소되어 차량속도가 줄

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부산시의 설치대상지 선정기준과 국토건설부의 설계지침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는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나 도로가 명시되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나 이 구간은 신호등이 없었고 차량정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원사항도, 구 요구사항도 아닌 사업을 부산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하면, 우리 구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데 이런 과정 없이 삼구구관 지사에 무조건적으로 승용하는 것은 자방자치 권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시행 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사전 충분한 설명 후 진행해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을 위하여

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맞춤형 생활SOC사업 등은 단순한 기반시설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과 역사성에 기반한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입니다. 남구는 UN기념공원,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특색 있는 문화 체험 공간보다는 관람에 치중되어 있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이 필요합니다. 대표 사례로 수영구 고려제강은 주변이 주택단지로 변해 더이상 가동 할 수 없게 되자 기존 형태를 유지한 채 F1903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미나, 음악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 기업이 입점해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동부창고 또한 산업 환경이 변하고 방치되었으나 지역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을 위한 작업 공간 등 다양한 행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대를 대표하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입니다. 남

구의 경우 앞으로 광명동굴과 같은 역사 테마파크를 조성 추진한다면 오히려 도 스카이워크, 해파랑길과 함께 문화, 건강 체험공간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 안된 프로그램을 문화공간으로 어울려 노인,장년층에게 제공한다면 심리적 안정과 교육 효과도 클 것입니다. 소규모 마켓을 개설한다면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주민 삶의 공간 어디든 공간문화 콘텐츠는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 문화로 세계에 명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지역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정체

을 점령하여 정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 매장은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입점하고 있어 피크 시간 때는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매장은 진출입로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매장이 확대될 경우 편리함과 수익함은 반감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이 보행로 진출입을 위해서는 원인 매장에서 도로 전용로로를 지불하는데, 남구의 5개소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올해 1,500여 만원을 지불하였으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더 부과하여 진?출입로에 시선유도시설과 발효타라, 조영시설,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매장의 피크시간 때 주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일지리를 활용하여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교통정리를 유발하는 사업주가 노인 일자리 비용을 지불하고 교통정리의 일부가 부과된다면 교통정체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남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허가할 때부터 주차장 확보 및 차량정체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청 및 업체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드라이브 스루매장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및 교통정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